

Live Stylish

# WUEL



HERE  
ARE  
TRUE  
CLASSICS!



## 이탈리아 남자를 만나다

멋쟁이들은 태생부터 다르다? 틀렸다. 그들은 멋있어 보이길 원하고, 그래서 노력한다. 고유의 오라와 매력은 그 노력이 몸에 밴 결과다.



‘일상이 화보’란 문구를 절감했다. 지난해 9월호에 실린 ‘Coffee & Cigarette’를 필두로 올해 2월호까지 실린 이탈리아 남자 화보 시리즈를 보면서 말이다. 밀라노와 피렌체 거리에서 포착한 이탈리아 남성들의 자연스러운 스타일과 애티튜드는 매번 모델과 스타프를 꾸려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나의 화보를 비웃기라도 하듯 우월했다. 어쩌면 이렇게 멋지기만 할까? 밀라노의 어느 비밀스러운 저택의 뒷마당에 감각의 샘물이 풍풍 솟고, 매일 아침 약수를 뜨듯 그 물만 마시고 사는 건지, 이들의 멋과 여유란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경지라고 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 1월, 피렌체와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남성들의 또 다른 면모를 확인하고야 말았다! 멋과 여유 안에 감춰진 그들의 치밀한 계산과 기교는 뻔뻔하기까지 한 애티튜드, 허풍과 고집, 익살스럽고 짓궂은 미소, 이제야 그들이 사람으로 보인다. 그것도 아주 매력적인 남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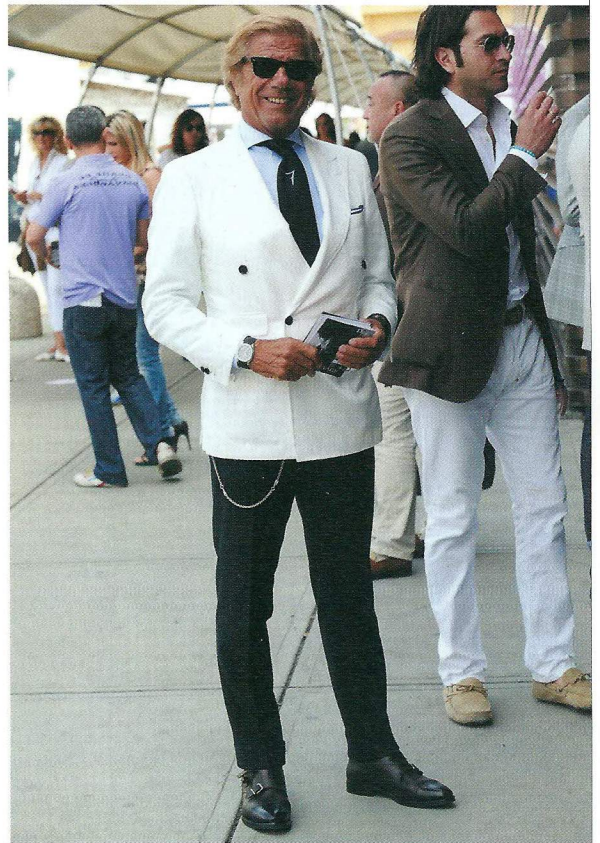
시작은 피티 아마지네 워모 기간 피렌체의 한 행사장에서 부터였다. 그곳에 리노 레루치가 나타났고,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적어도 그를 아는 동양인들)은 그의 존재에 부담을 느끼는 눈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리노 레루치는 세계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클래식 편집매장 알 바자를 대표하는 인물 아닌가! 그런데 그가 나와 동행한 포토그래퍼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하며 말을 붙이는 것이었다(그녀는 지난 몇 시즌 동안 피렌체에서 스트리트 사진을 찍으며 이곳의 유명 멋쟁이들과 안면을 익힌 바 있다)! “이번 시즌엔 포르테차(피티 워모 박람회)가 열리는 장소)에 안 오니? 난 거기 내일까지만 나갈건데.” 자신을 카메라에 담고 싶다면 다음 날 박람회장으로 오라는 얘기였다. 다음 날, 그는 정말 메인 파빌리언 앞에 나타났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고 있던 그녀를 확인한 뒤 촬영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물론 기다리는 티는 안 냈다. 포토그래퍼가 다가서자 리노는 반갑게 인사하고 일부러 계단에 올라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듯한 포즈를 알아서 취해주었다. 뭐랄까. 그에게는 너그러운 주름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 같은 면이 있었다. 체크 패턴의 하늘색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에 7이 새겨진 원 포인트 타이, 그레이 플란넬 팬츠와 그라데이션 몽크 스트랩 슈즈까지 작년 겨울과 똑같은 옷을 입고서도 여전히 주목받길 원하고, 그걸 즐기는 그, 좀 더 생각이 미치니 매 시즌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건 어쩌면 그의 치밀한 계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에 띄는 것을 즐기고 나서기를 서슴지 않는 특유의 녀석은 비단 리노의 얘기만은 아니었다. 포토그래퍼들이 밀집한 메인 파빌리언 입구를 지나는 남성들의 애티튜드만 봐도 알 수 있었다. 하늘색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를 걸치고 화려한 스카프를 맨 다음 황토색 가죽 장갑을 코트 주머니에 끼운 백발의 신사는 포토그래퍼들의 주문에 따라 코트 자락을

의도적으로 휘날리며 같은 거리를 다섯 번 정도 왔다 갔다 했다. 그의 워킹에 어색함이나 부끄러움 따윈 없었다. 메인 파빌리언 2층 테라스에서 만난 키톤의 남자들 역시 전형적인 이탈리아 스타일이었다. 옷차림뿐만 아니라 허풍을 조금 걸들인 말투와 짓궂은 농담들이 그랬다. 멋쟁이로 소문난 사맛의 형제들은 또 어쩔고 동생인 니콜라는 헤링본 패턴의 양말을 일부러 찾아 신는 남자다. 볼드한 체크 패턴도 그가 좋아하는 옵션 중 하나. 일본의 어느 패션 블로거에게 불러나가 사진을 찍힌 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사맛 부스에 돌아온 그를 보며 전연 몰랐던 새로운 장면을 그릴 수 있었다. 그날 아침 몇 벌의 체크 팬츠와 타이를 두고 매칭을 고민했을 그의 모습 말이다. 형인 발렌티노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오라가 풍기는, 몇 안 되는 이탈리아인 멋쟁이 중 하나지만 사진을 찍자고 했을 때 온갖 포즈를 다 취했다. 꽤 높은 돌 난간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벤치에 앉았을 땐 카메라를 향해 눈을 치켜 떴다. 넓어서 더욱 우아한 코트의 깃을 한껏 세우고 일부러 코트 주머니가 아닌 재킷 주머니에 양손을 푹 찌러 넣은 뒤 활짝 웃기도 했다. ‘폼 하나에 죽고 살고’란 문구는 이들의 모토임이 분명해 보였다. 본능적이면서도 한편으로 치밀한 이탈리아 남성들의 ‘자신 드러내기’는 손목 같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계속됐다. 네이비 블레이저와 스트라이프 드레스 셔츠로 한껏 포멀하게 차린 다음 기당치도 않아 보이는 형광색 고무 시계를 찬다거나, 빨간 가죽 시계와 여성스러운 옥돌 팔찌를 매치하거나, 한 번에 세 개 이상의 팔찌를 레이어링하는 식이다. 특히 이 팔찌들은 소재와 색깔이 너무 다양해서 허를 내두를 정도였다.

태생부터 다른 줄로만 생각했는데 이들을 직접 만나고 난 뒤 결론은 좀 달랐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탈리아 남성들의 감각과 멋은 ‘나를 드러내고 싶다’는 가장 일차원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참 단순하지만 가장 솔직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노력하고, 화려하게 소화한다. 여기에 이탈리아인 특유의 인간적인 면모가 더해져 시너지를 낸다. 쉽게 흥분하고, 편애가 심하고, 허풍도 떨지만 적어도 꾸밈 것 다 꾸며놓고 이닌 척 내숭 떠는 각쟁이 같지 않아서 끌린다. 너무 솔직해서 기교는 치사하고 능글맞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그들의 매력이다. 약간의 허풍과 넘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교본 같은 옷차림을 넘어 독특한 색깔을 낼 수 있는 것 아닐까. 옷만 잘 입는 남자는 향기 없는 꽃이지만 이탈리아 남성들에게 향기가 있다. 비단 이탈리아 남성들뿐만이 아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익숙한 남성들에게 모두 고유의 멋과 오라가 있다. 이 책은 그 향기를 <LUEL>의 독자들에게도 전하기 위함이다. 지금부터 감상할 지구 최고의 멋쟁이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그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다.





**LINO LELUZZI** SELECT SHOP OWNER

그는 '오버'스럽다. 하지만 그에겐 어울린다. 그의 아이콘과도 같은 스틸 체인과 레이어드해서 착용한 팔찌, 그리고 더블 몽크 스트랩까지. 웬만한 멋쟁이는 하나라도 벅찬 저 아이템들을 동시에 시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촌스럽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리노만의 매력이다.